

순천시 1명이 이틀간 15명 감염 ... 전파속도 무섭다

20대 헬스강사, 전남 93번에 감염된 뒤 '슈퍼 전파자' 역할
동선 추적하는 사이 또 다른 집단 전파 ... 시민 방역 절실

서울 방문판매업체 발(發) 순천 코로나 19 확산세가 무섭다. 전남에서는 지난 26일 9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27일 낮 동안 9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으며, 단 1명(담양)을 제외한 신규 확진자는 모두 순천에 집중됐다. 특히 순천 헬스장 2곳에서 스피닝 강사로 활동하며 마사지사 겸하는 20대 남성(전남 93번 확진자)에 의한 감염자가 최근 2일간 15명이나 쏟아지면서 슈퍼 전파자로 떠올랐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순천에서는 27일 밤 7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이날 낮 동안 8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앞서 이날 오전 담양에서도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이로써 전남지역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는 117명이다.

지난밤 순천에서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5명은 헬스장과 헬스강사를 매개로 감염됐다. 순천 거주 30대 여성인 전남 102번 환자는 감염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코로나 19 전남 재확산 계기가 된 서울 방문판매업체 무한그룹에 다녀온 뒤 지난 17일 확진된 전남 50번 확진자(70대 여성)의 지인 1명도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은 담양 거주 60대 남성의 경우 광주의 집단감염지의 하나인 탁구장이 감염경로(광주 288번 접촉)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들어 순천에서만 8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여기에는 이른바 슈퍼 전파자로 떠오른 20대 남성 헬스장 강사의 가족 4명(형, 누나 및 조카 2명)도 포함됐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순천 청암헬스장과 김선생헬스장에서 스피닝 강사로 활동 중

인 전남 93번에 의한 감염자만 최근 2일 동안 15명으로 확인됐다"며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관련 환자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순천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무섭게 번지자 인근 광양·여수도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30분 이내의 생활권이어서 확진자들의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주에서는 지난 24~25일 광주 확진자가 빚기람동 한전KDN 구내식당을 이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한전KDN 및 협력업체 직원 800여명이 검사를 받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 코로나 19 재확산 시점인 지난 17일 이후 지역에서는 총 7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순천 49명, 광양 7명, 진도 5명, 곡성 3명, 화순 3명, 무안 2명, 영광 2명, 나주 1명, 담양 1명이다.

지난 25일 이후 순천에서 발생한 34명의 확진자 가운데 헬스장에서 '노마스크' 상태로 운동하다 감염된 확진자만 무려 23명에 이른다. 병원, 면사무소, 순천만정원 등에서도 15명이 감염됐다. 특히 대형마트 푸드코트(식당가), 헬스장 등 마스크 사용이 곤란한 장소를 매개로 확산세가 무섭게 번지고 있다.

이에 김영록 전남지사조차 '바이러스 확산이 화살처럼 빠르다.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를 추적하는 사이 또 다른 집단 전염이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할 정도다. 김 지사는 "방역당국 대처보다 감염 속도가 빠르다. 마스크 착용 등 도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절실하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담양 보건소, 드라이브스루 역학조사

담양에서 첫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온 27일 오후 담양 보건소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역학조사관들이 차량문을 열지 않고 전화를 이용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정부 '완전한 3단계냐, 준하는 조치냐' 고민

"신속 결정...조만간 발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일 400명대로 급증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상황을 엄중함을 인식하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갈지, 완전한 3단계로 바로 갈지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속도 있게 논의하는 중"이라며 "(3단계 격상) 언제 실행할 것인지는 조만간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국민 이동량을 억제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문을 닫는 등 강제적 수단을 더 많이, 다양한 부분에 적용하는 방안인데 해당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피해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조치

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에 불필요한 약속·모임은 다 취소하고 집 안에서만 머무르며 밀집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앞서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1명 늘어 누적 1만870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400명대는 수도권 집단감염 사태에 따른 최근의 2차 유행 이후는 물론이고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기

중에서도 정점기에 속하는 2월 말 3월 초 이후 처음이다.

윤 반장은 "현재 유행하는 양상은 먼저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교회에서의 발생과 그로 인한 전파이고 두 번째는 8·15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지면서 생긴 확산, 또 이 사람들 외에 수도권과 그 외 지역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잠재돼 있을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현재 2단계 조치이긴 하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아직 시간이 짧은 부분이 있어서 그 이전의 전파, 확진자의 접촉자 등으로 인한 부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무증상 50%·깜깜이 6%

지역사회 감염 우려 확산

광주·전남지역에서 '무증상' 확진자와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증상 확진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일상 생활을 하면서 감염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고, 깜깜이 확진자는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어 감염원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는 최근 누적 확진자 중 53%가 무증상 확진자이고,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깜깜이 확진자는 6%(전국 평균 19.4%)에 이른다. 전남도 최근 10일 동안 확진자 중 무증상이 55%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무증상 확진자와 깜깜이 확진자는 본인도 감염사실을 모른 채 일상 생활을 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다. 무증상인 상태에서 가족과 직장 동료 등에게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인간의 방역 수칙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한편, 방역당국은 깜깜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분부장은 "대면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는 현재의 2단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코로나19의 상승 속도를 늦추고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방안"이라며 국민적 협조를 당부했다. /최권원 기자 cki@

공공시설 폐쇄 등 사실상 봉쇄...일상·경제 '울스톱'

거리두기 3단계 시행된다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단계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급박하게 차단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단계로, 일상생활이 더욱 불편해지는 것은 물론, 서민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

10인 이상 모임 금지·스포츠 경기 중단...장례식도 가족만 참석
병·의원, 약국·생필품 구매처 한정 운영...공무 활동 예외 허용

된다. 필수적인 공무나 기업의 경영활동 정도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고, 장례식도 가족 참석만 허용된다. 모든 스포츠 경기·행사는 중단되고, 모든 공공시설도 운영을 멈춘다.

민간시설은 집단감염 위험도에 따라 운영 가능 여부가 갈린다. 클럽·로컬상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 학원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고위험시설'과 카페나 목욕탕, 예식장 등 '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한

다. 음식점이나 필수 산업시설, 거주시설 정도만 영업이 가능하다. 음식점과 미용실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조치를 준수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정상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생활 필수시설로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이 해당한다. 학교와 유치원은 휴교·휴원에 들어가거나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재택근무 인원을 최대한 늘리게 된다.

현행 2단계의 경우 '일상적·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상과 방역관리를 조화하는 1단계로 복귀'하는 것이 목표이며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핵심으로 삼는다. 3단계처럼 '봉쇄' 수준으로 활동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 50인·실외 100인 미만의 모임은 허용되고, 프로스포츠도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고 있다.

고위험시설은 운영이 중단됐지만, 민간시설은 이용자·운영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영업 중이고, 학교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2단계와 3단계는 한단계 차이이지만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은 확실히 다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3단계로 올라가면 국민과 경제활동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단 QR코드를 참고하세요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조 자산 규모의
세계신협연맹의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1%~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2,400~4,800원 채권 3회 원리금 대환
-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저소득층연립 주택 임대료 지원
- 저연령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돕는 지원센터 설치
- 3~9세 아동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복지지원금 무료 지급
- 65세 이상 조영범 기초연금 대상자 지원금 지급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사채 정리 운동 실시 기간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관악지점	영암지점
● 영암지점	● 관악지점
문충지점 266-4150	영암지점 573-4150

관악지점	영암지점
● 관악지점	● 영암지점
문충지점 266-4150	영암지점 573-4150

관악지점	영암지점
● 관악지점	● 영암지점
문충지점 266-4150	영암지점 573-4150

관악지점	영암지점
● 관악지점	● 영암지점
문충지점 266-4150	영암지점 573-4150